

# 김학범호, 오늘 밤 U-23 챔피언십 중국전

### 올림픽 진출 티켓과 대회 우승 '두 마리 토끼' 사냥 유럽무대 경험한 중국 스트라이커 장위닝 경계령

'공한증(恐韓症)'은 U-23 축구 대표팀에서도 이어진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나서는 김학범호가 중국을 제물 삼아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끝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 15분 태국 송클라로 틴술라는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치른다.

AFC U-23 챔피언십은 올해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으로 치러진다. 아시아에 걸친 올림픽 티켓은 총 4장으로 개최국 일본이 1장을 챙기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나머지 3장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한국 축구는 이미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다. 김학범호의 목표는 올림픽 본선 진출 횟수를 9회로 늘리면서 이 대회 첫 우승 트로피까지 챙기는 것이다.

4번째 맞는 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최고 성적은 2016년 카타르에서 열린 2회 대회 준우승이다.

김 감독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과 첫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을 노린다.

U-23 대표팀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최종 담금질을 한 뒤 5일 태국 송클라로 이동해 대회 준비에 집중했다.

한국의 조별리그 C조 첫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은 C조(한국·우즈베키스탄·이란·중국)에서 최악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나머지 팀들의 1승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은 골 득실을 고려해 중국과 1차전에서 대승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 U-23 대표팀과 역대 상대 전적에서 10승 3무 1패로 월등히 앞선다. A대표팀(20승 13무 2패)과 마찬가지로 '공한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 U-23 대표팀과 맞붙은 게 2015년 11월이 마지막이라 단순히 역대 전적만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

태극전사 수비진이 신경 써야 할 중국 공격수는 유럽 무대를 경험한 스



김학범 한국 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8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송클라로 틴술라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트라이커 장위닝(베이징 귀안)이다. 중국 연맹별 대표팀을 거친 장위닝은 2015년 7월 비테세(네덜란드)에 입단하면서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웨스트 브로미치(잉글랜드)와 베르더 브레멘(독일) 등을 거친 장위닝은 지난해 2월 베이징 귀안으로 이적하면서 중국 무대로 복귀했다.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에서 8골을 넣은 장위닝은 A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도 10경기(2골)를 뒀 기대주다. 이에 맞서는 한국은 오랫동안 호

흡을 맞춘 김진야(서울)-김재우(부천)-이상민(울산)-이유현(전남)의 포백(4-back) 수비진이 중국에 실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더불어 최전방에서는 193cm의 장신 공격수 오세훈(상주)이 제공권을 활용한 다양한 득점 루트로 중국의 골문을 허물 준비를 마쳤다.

또 스피드가 뛰어난 임원상(광주)과 이동준(부산)이 좌우 날개를 맡아 빠른 돌파로 팀 공격의 활로를 뚫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제주 조성재·이희은 수영 국가대표 선발

### 2020도쿄올림픽 명단 포함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조성재, 이희은이 2020 도쿄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나선다.

제주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선발한 국가대표 선수 13명 중에 조성재, 이희은이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체고 출신으로 올해 제주시청에 입단한 조성재는 우리나라 남자 평영 200m를 대표하는 선수다.

조성재는 이미 도쿄올림픽 참가 기준 기록도 수립했다.

여자 혼계영 200m가 주 종목인 이희은은 지난해 이탈리아 나폴리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국가대표로



조성재 이희은

출전한 경험이 있다.

한편 제32회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된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은 충북 진천선수촌과 제주강정해군기지수영장,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서 동계훈련에 나선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제주유나이티드, 공격수 공민현 영입

### 전방 압박·공간 침투 장점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전천후 공격수 공민현(29)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K리그 2019시즌을 남기 일 감독이 지도하던 성남FC에서 보낸 공민현은 제주로 옮겨 남 감독과 또 다시 인연을 맺게 됐다.

공민현은 2013년 부천 FC 1995를 통해 프로무대에 데뷔해 2018년까지 K리그2 173경기에 출전해 32골 9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33경기

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전방 압박과 공간 침투 등에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민현은 "새 유니폼을 입었지만 지난해 남 감독과 함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축구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해 제주의 목표인 1부리그 승격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고진영 '올해의 선수상'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 고진영(25)이 미국골프기자협회(GWAA)가 선정한 2019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다.

GWAA는 회원 비밀 투표에서 고진영이 넬리 코르다(미국)를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8일(한국 시간) 발표했다.

고진영은 2019년 두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비롯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4승을 올리며 세계랭킹 1위에 자리했다.

남자부에서는 브룩스 켈프(미국)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켈프의 득표율은 44%, 매킬로이는 36%였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3위였다.

고진영 등 수상자들은 오는 4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막 하루 전날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LG 트윈스, 2020년 시무식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구내식당에서 열린 '2020년 LG 트윈스 시무식'을 마친 뒤 운영진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종일 감독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우승의 열망을 보였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롯데 FA 전준우 4년 최대 34억원 재계약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외야수 전준우(34)가 4년 더 거인 유니폼을 입는다.

롯데 지아인츠는 8일 전준우와 계약 기간 4년, 최대 34억원(계약금 12억원, 연봉총액 20억원, 옵션총액 2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롯데에 입단한 전준우는 11시즌 동안 1071경기에서 타율 0.294, 135홈런, 555타점을 기록한 프렌차이즈 스타다. 특히 올 시즌 투고타자의 흐름에서도 타율 0.301, 22

홈런, 83타점을 기록하며 기복 없는 공격력을 보여줬다.

롯데 구단은 "전준우는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이며 리그 정상급의 프렌차이즈 스타"라며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었고 놓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선수단에 귀감이 되는 선수로서 선수단 안팎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전준우는 "계약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다려주신 롯데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께 롯데에 남아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팬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롯데에서 계속 야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 천제관(체육관, 급식실) 개관기념

# 제4회 중문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대회

중문중학교 동문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4회 본교 총동문회 한마음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20년 1월 11일 (토) 10:00 장소 중문중학교 체육관

주관 | 중문중학교총동문회



총동문회장 김용국

중문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용국